

휘발유, 4주 연속 하락 1934원

전국 주유소의 주간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4.9원 하락한 1933.9원, 경유는 7.1원 내린 1742.5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했으나 8월 둘째 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내등유도 3.5원 내린 1341.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2014.9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941.1원), 경기(1940.8) 등이 비교적 비쌌으며 광주(1908.2원), 전북(1918.0원), 전남(1919.2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리터)

구 분	2010	2011/7	8/2	8/3	8/4	8/5	등 락
보통 휘발유	1,710.4	1,934.7	1,952.6	1,947.1	1,938.8	1,933.9	↓ 4.9
자동차경유	1,502.8	1,754.4	1,767.4	1,760.2	1,749.6	1,742.5	↓ 7.1
실내 등유	1,076.0	1,351.1	1,352.6	1,349.4	1,345.3	1,341.8	↓ 3.5

정유4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리터당 5.3원 오른 897.2원을 기록해 3주 만에 상승했으나 자동차용 경유는 3.9원 하락한 939.7원, 실내등유는 8.0원 떨어진 935.7원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열대성 폭풍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9월부터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1/09/05>